

원단의 태 평가 용어 정의

- 고시(koshi, stiffness) : 천을 손으로 쥐었을 때 느끼는 반발성, 탄성, 가소성을 종합해서 표현하는 감촉. 이것이 적당하면 천이 신체에 엉겨 붙지 않고 신체와 천 사이에 적당한 공간을 만들며 의복의 형태가 안정되어 움직임과 양호한 착용성을 부여하여 아름다운 외관을 만든다. 탄력성이 있는 섬유나 실로 구성되어 있고 적당한 밀도를 가진 천이 강한 느낌을 나타낸다.

- 하리(hari, anti-drape stiffness) : 천을 쥐고 치켜들었을 때 피아노 선을 튕기는 것처럼 느끼는 감촉, 뻣뻣한 감촉 등을 종합하여 표현한 감각. 직물의 탄력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드레이프성이 없는 뻣뻣함을 말한다. 고시와는 약간 다르나 역시 피부와 천 사이에 공간 유지, 얇은 천으로 형태안정성이 좋은 의복 제작을 위해서는 이러한 성질이 필요하다.

- 누메리(numeri, smoothness) : 천을 만졌을 때 느끼는 부드러운 감촉, 어린 아기의 피부를 어루만질 때의 감촉 등 부드러운 감촉을 종합하여 표현한 느낌을 말하는데 가늘고 부드러운 양모섬유에서 많이 느껴지며, 만졌을 때의 매끄러움, 부드러움(탄력성이 있으면서), 유연함이 섞인 감각이다. 주로 유연성, 미끌림, 탄력성의 양호의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 후쿠라미(fukurami, fullness & softness) : 천을 손으로 쥐었을 때의 부피감, 중후한 감촉, 압축 탄력성 등을 종합하여 표현하는 감각을 말하며, 폭신하고 부드러우며 압축 반발이 좋으며 따뜻함을 수반하는 입체감은 이러한 감각과 관련이 깊다. 천의 후쿠라미(swelling의 의미)는 초기 인장 특성과 관련이 깊으며 의복 착용시의 움직임과 쾌적성에 관계한다.

- 샤리(shari, crispness) : 천을 겹쳐서 엄지와 약지로 비빌 때 느끼는 까실까실

한 마찰감, 천을 손으로 어루만질 때 느끼는 조경한 감촉 등을 종합한 감각. 조경한 섬유나 강한 꼬임의 실로 제조된 천에서 강하게 느껴지며, 주로 천의 표면특성으로 평가하며, 청량감에 관계하는 감각이다.

- 키시미(kishimi, scroop) : 천을 엄지와 약지로 쥐고 비빌 때 표현되는 살랑살랑 소리 혹은 바삭바삭 소리(rustle or crunch), 옷깃이 스칠 때 느끼는 소리 등을 종합하여 나타내는 감각을 말한다. 건명의 느낌. 특히 순견직물로 만든 옷깃이 스칠 때 이런 느낌이 강하다.

- 시나야카사 (shinayakasa, flexibility & softness) : 천을 손으로 만졌을 때 느끼는 부드러움, 유연하면서 매끄러운 감촉을 종합해서 표현하는 감각을 말한다.